



박유미(안양대)

1. 들어가는 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이 내려지면서 낙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현재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낙태를 반대하며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고 여성계는 낙태를 찬성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낙태를 하는 사람은 기혼인 경우가 37.9%인 반면 미혼이나 동거의 경우가 60%를 차지한다. 그 이유도 사회적 활동 장애(33.4%)와 경제적 어려움(32.9%)이 가장 많은데² 이것은 미혼 혹은 비혼 여성이 아이를

1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86259)

2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133100017> “‘키우기 힘들어서’ ...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낳았을 경우 받게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혼모나 싱글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미혼모가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도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미혼모와 혼외 자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생명 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와 싱글맘과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들도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미혼모나 혼외 자녀에 대해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교회가 미혼모와 혼외 자녀를 간음 죄를 지은 부정적인 존재로 보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생명 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과 조화되지 않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귀하게 여기는 반면 태어난 아이와 그를 낳은 어머니는 배척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미혼모와 혼외 자녀 중에서 특히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들도 정상적인 사회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태어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태어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혼외 자녀를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은 교회의 보수적인 성 윤리와 결혼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함께 신명기 23장 2절의 “사생자는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구절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개역 개정의 번역인 ‘사생자’는 ‘사적으로 태어난 아이’란 뜻으로 혼외 자녀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혼외 자녀를 가리키는 구절로 해석되어 혼외 자녀를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되어왔다. 칼빈(John Calvin)은 혼외 자녀는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는데 제외되면 안되지만 어머니의 범죄로 인해 괴물 같은 잡종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현세적 형벌로 그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깊어져야 할 짐이라고 하며 차별을 정당화하였고³ 이런 전통이 현재까지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나온 신명기 설교집들을 보면 대부분 23장 2절을 사생자로 해석하며 이들을 존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설교한다.⁴ 이런 설교들을 통해 교회는 혼외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심어주게 되고 혼외 자녀들이 교회에 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혼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 입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건영은 “입다가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입다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신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⁵ 이렇게 혼외 자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설교와 해석이 현재 한국교회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런 모순된 해석이 구

3 존 칼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514.

4 김서택은 “부모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바람을 피울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라며 혼외 자녀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김서택, 「신명기 강해집: 축복의 디자인」 (서울: 솔로몬, 2007), 470; 김상복은 “자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한 아들만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 「행복은 선택이다」 (서울: 도서출판 햇빛, 2000), 374. 이세용은 “사생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정욕을 상징하고 음란성을 대변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라며 혼외 자녀를 음란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세용, 「새벽만나: 신명기」 (안산: 만나북스, 2017), 310.

5 황건영, 「통곡의 눈물에서 승리의 비상으로」 (서울: 그리스, 2007), 196-197. 그 외에도 조관호, 이동원, 김서택도 입다가 혼외 자녀이기 때문에 쫓겨난 것에 안타까워하며 입다를 믿음의 인물로 평가한다. 조관호,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들 2」 (서울: 그리스, 2006), 176-216; 이동원, 「이렇게 시대를 극복하라: 사사기 강해 설교」 (서울: 나침반, 1999), 141-152; 김서택, 「위대한 부흥의 불꽃, 이스라엘의 사사들 3」 (서울: 홍성사, 2001), 35-40. 여성민도 그가 상처 입은 인물이며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성민, 「꼭꼭 씹어먹는 사사기」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220-226.

약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혼외 자녀에 대한 두 개의 관점 때문인지 아니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인지 아니면 혼외 자녀에 대한 한국교회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관점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혼외 자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신명기 23장 2절의 ‘מַמְזֵרָה(맘제르)’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이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혼외 자녀를 의미하는 ‘사생자’로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이 정당한지 그리고 신명기 본문이 혼외 자녀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라는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둘째, 혼외 자녀가 나오는 구약의 본문들을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구약의 혼외 자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셋째, 신명기 23장과 상호관련성을 가진 이사야 56장 1-6절의 해석을 통해 신명기 23장의 배제 원칙을 어떻게 현재 교회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교회가 혼외 자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온전하고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 신명기 23장 2절 맘제르에 대한 해석

1) 신명기 23장 2절 본문 해석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신명기 본문의 여호와의 총회는 종교적 제의적 모임으로 신명기 23장의 법은 제의적이고 성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총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⁶

6 G. Johannes Botterweck and F. Heinz-Josef,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12, trans. D.

패트릭 밀러(Patrick D. Miller)도 “1-8절의 규례들은 대부분이 종교적 집단의 특징인 공식적인 제의 참석권 혹은 구성원의 자격을 가리는 기준들과 동등하다”⁷며 제의 참석의 기준으로 보았다. 노회원은 예배에 참석하는 백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⁸ 이렇게 총회를 예배 모임으로 보던 이스라엘 전체 모임으로 규정하던 이 모임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이므로 현재 교회 공동체와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2절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생자’가 등장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מַמְזֵר(맘제르)’인데 신명기 23장 2절(23:3)의 70인경에서는 맘제르를 ‘매춘부와 같이 성적으로 부정한 여자에서 출생한 아이’를 의미하는 ‘ἐκ πόρνης(에크 포르네스)’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맘제르는 이 본문 외에는 스가랴 9장 6절에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로 한글 개역 개정의 ‘잡족’은 외국인을 의미하며 70인경도 ‘외국인’이란 뜻의 ‘ἀλλογενεῖς(알로게네이스)’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스가랴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는 집합명사로 사용되었다. 만일 스가랴의 번역을 그대로 신명기의 현재 본문에 가져오면 ‘외국인’은 10대가 넘어갈지라도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십대’는 문자적으로 십대가 넘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⁹ 만일 스가랴서의 해석을 따르면 외국인인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해야지만 이런

W. Stott (Grand Rapids : Eerdmans, 2003), 552. 이하 TDOT.

7 패트릭 D. 밀러, 「현대성서주석: 신명기」(김희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74, 원제 Patrick D. Miller, *Deuteronom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8 노회원, “신23장에 나타난 가족과 회중의 질서”, 「신학논단」30호 (2002), 16-17.

9 J. G. McConvile, *Deuteronomy*, (Apollos: InterVarsity Press, 2002), 348;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 commentary*,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11;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shville: Broadman& Holman, 1994), 308.

해석은 현재 신명기 23장을 해석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신명기 23장 2절에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금지함으로 2절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7-8절에서는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에는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외국인은 영원히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규정과 어긋난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신명기 23장 2절의 맘제르를 ‘외국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른 해석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서 현재 본문에서 맘제르를 혼외 자녀를 의미하는 ‘사생자’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혼외자로 보는 견해

‘맘제르’를 혼외자로 보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해석으로 칼빈의 경우 태생이 의심스러운 자, 소위 누구 자식인지 모를 자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으로 태어난 모든 사생자에게까지 연장시킨다. 다만 “하나님께서서는 비록 그들이 자기 부모의 잘못에 의해 그 조상의 이름으로 행세할 수는 없을 지라도 이 불행한 자들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배제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현세적 형벌로 그들을 비천하게 하셨고 그들이 타인에게 유익한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면서¹⁰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척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런 칼빈의 견해는 이후 개신교의 혼외자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가톨릭과 다른 점은 혼외 자녀에 대한 세례를 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당시 가톨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은 최근인

10 존 칼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1」, 514.

2014년에도 혼외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 논쟁을 계속하였다.¹¹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도 맘제르를 혼외 자녀로 보며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애하거나 잡혼을 통해 낳은 자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¹² 이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은 교회의 혼외 자녀에 대한 관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유교 문화와 결합하여 지금도 교회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사전적 근거가 약하다. 켈러-바움가르트너 사전은 맘제르를 ‘혼혈아’로 해석하고¹³ BDB 사전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2) 혼혈아 혹은 종교적 혼혈아로 보는 견해

투스(Deanna A. Thompson)은 맘제르를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사람의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로 단순한 ‘혼혈아’로 보았다.¹⁵ 소형근은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혼혈아’로 보며 이 혼혈이는 혼합적 종교를 소유한 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¹⁶ 크레이기(Peter C. Craigie)는 이 표현을 신명기 23장 18-19절과 연결하여 “이방 종교 제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환경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며¹⁷ 이방 종교와 직접적 연관되었다고 본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가나안 신전 창기의 아들이나 딸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아

11 김소정, “8월에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 신문」, 2014년 7월 2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63>, 검색일자: 2022.03.02.

12 월터 카이저, 「구약성경윤리」(홍용표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220. 원제 Walter C. Kaise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MI : The Zondervan, 1983).

13 Koehler 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 M. E. J. Richardson, (Leiden: Brill, 2001), 595. 이하 HALOT.

14 Brown, Driver,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in Bible works 10, 5162. 이하 BDB.

15 Deanna A. Thompson, *Deuteronom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171.

16 소형근,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423.

17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295.

이들은 출생 시 이교신에게 바쳐졌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들이 배제된 이유는 이교 신앙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불손중이면서 또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⁸ 맥콘빌(J. G. McConville)은 이 단어가 종교적 용어로 이방신의 자녀라고 해석하며 이 본문이 제의 제도와 나란히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⁹ 브라운(Raymond Brown)과 맥콘빌은 아예 이방신에게 바쳐진 아이로 본다. 이렇게 혼혈아로 보는 경우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해석은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혼혈아’로 보는 경우 히브리어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뜻하는 ‘עִרְבָּי(에레브)’라는 단어가 있다(출 12:38; 느 13:3). 그러므로 다른 민족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를 말하고 싶다면 굳이 뜻이 모호한 ‘맘제르’ 대신 ‘에레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므로 종교적 혼합주의와 연결된 혼혈아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더 타당해 보이지만 ‘이방신에게 바쳐진 아이, 혹은 이방신의 자녀’라는 해석을 뒷받침할만한 구약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 해석도 한계를 가진다.

(3) 불법적 성관계와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아이

밀러는 맘제르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법적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로 해석하면서 예를 들어 근친상간을 통해 출생한 자녀들이라고 하였다.²⁰ 노희원은 BDB 사전을 근거로 맘제르를 ‘근친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단어는 아랍어 근친상간을 뜻하는 단어를 차용한 것으로 레위기 18장 6-17절에는 금지된 성관계, 특히 근친혼에 대한 금지를 규

18 Raymond Brown, *The Message of Deuteronomy: Not by Bread Alon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3), 219.

19 McConville, *Deuteronomy*, 348.

20 밀러, 「현대성서주석: 신명기」, 274.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볼 때 신명기 23장 2절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근친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해석하였다.²¹ 그는 신명기 23장 2-8절은 전체적으로 부정한 성관계 특히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구절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대표적 법이고 맘제르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이고 아버지와 딸의 근친관계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맘제르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²² 레비트스키(Joseph Levitsky)는 맘제르를 레위기 18장, 20장과 연결하였으며 특히 유대 율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미쉬나 토라에서 맘제르는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강제이든 자발적이든 금지된 성교(간통 혹은 근친상간)로 인해 태어난 자손이며 그 중에서도 신명기 법은 근친상간에 관심이 있다고 보았다.²³ 그는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창 19장)와 이 본문을 연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의 탄생이 롯과 그의 딸들 사이의 근친상간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혐오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경멸감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⁴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근친상간에 의한 성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로 해석하고 있다.²⁵ 필자가 보기에 이 해석이 BDB 사전적 의미와 신명기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석할 때 맘제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1 노희원, “신23장에 나타난 가족과 회중의 질서”, 23.

22 노희원, “신23장에 나타난 가족과 회중의 질서”, 27. 베릴도 이 부분을 창세기 19:30-38과 연결시켜 암몬과 모압이 제외된 것이 근친상간 때문이라고 해석, Merrill, *Deuteronomy*, 303.

23 Joseph Levitsky, “THE ILLEGITIMATE CHILD, (MAMZER) IN JEWISH LAW”, *Jewish Bible Quarterly*, 18 no 1 Fall (1989), 7. 탈무드도 간통이나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로 해석한다. Tigay, *Deuteronomy*, 211.

24 Levitsky, “THE ILLEGITIMATE CHILD”, 8.

25 W. Q. VanGemeren ed.,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971; 듀엔 크리스텐센, 「신명기2」(정일오음김), (서울: 솔로몬, 2007), 174. 원제 Duane L. Christiansen, *Deuteronomy 21:10-34:12*, (Nashville, Tenn. : Thomas Nelson, 2001); Jack R. Lundbom, *Deuteronomy: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3), 647.

결론적으로 맘제르는 혼외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성관계 중에서 특히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특수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므로 신명기 23장 2절의 규정을 근거로 혼외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배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구약에서 혼외 자녀가 나오는 다른 본문들을 통해 구약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겠다.

3. 구약의 혼외 자녀 본문 연구

이 장에서는 신명기 23장 2절 이외에 구약에서 혼외 자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본문들을 살펴보고 이 본문들에서 혼외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혼외 자녀가 나오는 본문과 남성의 혼외 자녀가 나오는 본문을 구분하여 다루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혼외 자녀에 대한 구약의 인식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1) 남성의 혼외 자녀 문제-입다 내러티브(삿 11:1-12:7)

사사기 11장에 소개된 사사 입다는 구약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남성의 혼외자이다. 이 글에서는 혼외자 부분에 주목하여 입다의 혼외자라는 특징이 입다 내러티브 플롯 구조²⁶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려고 한다.

26 입다 내러티브의 플롯 구조는 다음의 구조를 따를 것이다.

프롤로그(삿 10:6-18) 입다를 부르기 전 이스라엘 상황

중심 이야기(서 11:1-12:6)

해설(삿 11:1-3) 입다 소개

발단(삿 11:4-11) 입다가 사사가 됨

사사기 11장 입다 내러티브에서 입다는 ‘큰 용사’와 ‘기생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소개된다. 개역개정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וְהָיָא בֶן-אִשָּׁה זֹנָה וַיִּזְלַךְ גִּלְעָד אֶת-יִפְתָּח(베후 벤-이샤 조나 바올레드 길아드 에트-이프타흐)로 직역하면 ‘그는 창녀의 아들이고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이다’이다. 여기서 ‘창녀’로 번역한 זֹנָה אִשָּׁה(이샤 조나)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신 23:19; 수 2:1; 사 16:1; 왕상 3:16) ‘다른 남자의 아내’를 뜻하기도 한다(잠 6:26). 또한 신명기 22장 21절에서 동사 זָנָה(자나)는 ‘창녀처럼 행동하다, 음행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이 문맥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아버지 몰래 혼전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슈나이더(Tammi J. Schuneider)는 “‘조나’라는 단어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직업적인 창녀를 의미한다고 이해되었지만 이 단어는 또한 결혼 관계 이전이나 결혼 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갖는 여성을 지칭해서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한다.²⁷ 사손(Jack M. Sasson)도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가족에서 내쫓을 때 그가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쫓는 것을 근거로 성매매 여성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²⁸ 즉, 이 단어만을 가지고 입다의 어머니가 성매매 여성인지 아니면 혼외 관계를 맺은 여성인지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의 어머니의 지위가 아니라 입다가 길르앗의 부인이나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길르앗의 혼외자라는 것이다.

전개(삿 11:12-33)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

절정(삿 11:34-40) 입다의 딸이 죽음을 맞음

결말(삿 12:1-6) 에브라임과의 전쟁

에필로그(삿 12:7) 입다의 죽음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14-215.

27 Tammi J. Schuneider, *Judge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0), 162.

28 Jack M. Sasson, *Judges 1-12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2013), 420.

그리고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표현은 외도의 주체가 길르앗이고 입다는 그의 외도로 생긴 아이라는 것과 길르앗이 입다를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절에서 화자는 길르앗의 아들들을 ‘아내의 아들들(בְּנֵי הַיְשָׁרָה/베네-하이샤)²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내의 아들들은 입다를 ‘다른 여자의 아들(בְּנֵי אִשָּׁה אַחֵרָה/벤-이샤 아헤레트)’이라 부르며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쫓아낸다. ‘쫓아내다’라는 뜻의 동사 ‘נָרַשׁ(가라쉬)’는 한 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쫓아낼 때 주로 사용되었다(창 3:24; 출 10:11). 3절에서 결국 입다는 형제들을 피하여 뚝 땅에 거주한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동사 ‘בָּרַח(바라흐)’도 전치사 ‘מִן(민)’과 함께 사용하여 ‘~에서 도망하다’라는 뜻이다. ‘쫓아내다’, ‘도망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다양한 위협을 가해 결국 입다가 그 위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입다가 쫓겨나는 상황이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그가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고향인 길르앗에서도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던 모든 원인은 그가 혼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뚝 땅에서 입다를 중심으로 잡류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잡류’로 번역된 ‘רֵיקִים וְאִשָּׁיִם(아니쉬 레킴)’은 구약에 세 번 사용되는데 직역하면 ‘텅빈 사람들’로 어떤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³⁰ 이들은 물려받은 기업이나 생계 수단이 없기에 주로 용병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³¹ 입다도 혼외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아니쉬 레킴이 되었다. 그리고 이

29 이 구문은 직역하면 ‘여자의 아들들’이지만 문맥상 이샤는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30 삿 9:4과 11:3에서는 문맥상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반면 대하 13:7에서는 ‘רֵיקִים וְאִשָּׁיִם(아니쉬 레킴)’과 ‘불량배’를 의미하는 ‘בְּנֵי בְלִיעַל(베네 벨리아알)’이 나란히 배열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용례들을 정리해 보면 ‘아니쉬 레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자들로 용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1 Ba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Grand Rapids: Eerdmans, 2012), 310, note 28.

들은 스스로 입다에게 모인다.

사사기 11장 1-3절에 묘사된 입다의 모습은 큰 용사이며 길르앗 지역의 유력자인 길르앗의 아들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혼외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아버지의 기업도 받지 못하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국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즉, 능력은 뛰어나지만 혼외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서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비록 입다가 혼외자일지라도 길르앗의 아들이로서 기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르쿠스(David Marcus)는 고대 근동법에 따르면 창녀의 아들이기에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³² 그리고 유대법에서도 아이의 아버지가 맘제르가 아니라고 말한 미혼 매춘부의 경우 그 자녀는 합법적인 아이로 간주된다고 보았다.³³ 블록(Daniel J. Block)도 이스라엘 상속법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처사는 상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⁴ 이런 상속법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길르앗 장로들이 재판에서 입다의 형제의 편에 섰기에 가능한 것이다. 기업의 상속과 같이 중대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길르앗 공동체는 입다가 혼외자라고 배제하며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쫓아낸 것이다.

이런 입다의 상황은 암몬이 쳐들어오면서 바뀌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뚝 땅에서 데려오기 위해 찾아간다. 입다를 혼외자라고 배척하던 이들이 큰 용사라는 명성을 얻게되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

32 David Marcus, "The Legal Dispute Between Jephtah and The Elders", *HAR* 12(1990), 112.

33 Levitsky, "The Illegitimate Child, (MAMZER) in Jewish Law", 10.

34 Daniel J. Block, *Judges Ruth*,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1999), 353; 참조, 트렌트 J. 버틀러, 「사사기」(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681-682. 원저 Trent C. Buttler,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간 것이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다. 입다는 이전에 장로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이것은 장로들이 입다와 입다 형제 사이의 분쟁에 관여하였고 입다의 형제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워하다’ 라는 표현은 장로들의 판결이 법을 따른 정의로운 재판이 아닌 혼외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판결이라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이런 입다의 말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왔다(הָאֵלֹהִים שָׁבְנוּ אֵיכָה/아타 사브누 엘레카)” 라는 말을 하며 자신들과 같이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해주면 입다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³⁵로 세우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왔다’ 라는 말은 상당히 독특하다. 입다가 길르앗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다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황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그런데 장로들이 입다에게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장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버틀러는 이를 “회개하는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³⁶ 이런 장로들의 회개는 이전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에 입다는 정말 자신을 머리로 삼을 것인지 다시 확인한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는 장로들이 자신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자신을 기업에서 쫓아낸 장로들이 자신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게 빼앗긴 아버지의 기업을 되찾고 가문의 일원, 길르앗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신분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대신 입다는 승리를 조건으로 머리가 되겠다고 한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지만

35 반 루이(NIDOTTE, 3: 1017-18)는 머리가 단순한 군사적 리더가 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마도 통치자와 같은 중요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 삼상 15:17 사울의 예, 버틀러, 「사사기」, 제인용. 684.

36 버틀러, 「사사기」, 684.

다른 한 편으로는 만약 승리할 경우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길르앗 장로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결국 입다는 미스바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식 사사로 세워진다.³⁷ 입다의 혼외자라는 특징은 해설과 발단 부분에서 입다가 왜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며 어떻게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입다의 혼외자 모티프는 전개인 암몬과의 전쟁과 절정인 입다 딸의 죽음 부분에선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내리티브의 결말 부분에서 다시 등장한다. 에브라임이 길르앗과 전쟁하기 위해 입다를 도발할 때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하였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도망자들’이란 말은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³⁸ 즉, 길르앗은 입다와 같이 불법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혼외자와 같은 지파라고 조롱하고 에브라임은 입다의 형제들과 같은 적법한 아들들로 비유하며 암몬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입다가 혼외자라는 것을 빗대어 전리품을 강탈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입다가 판결의 사람으로 등장한다. ‘אִישׁ לִיב’ (이슈 리브)에서 리브는 ‘논쟁하다’라는 뜻으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버틀러는 입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판결자로 규정하게 하며 백성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며 여기서 그는 에

37 매튜스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이 계약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참여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첨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승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직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Victor H. Matthews, *Judges and Ruth*,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19.

38 영거도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의 ‘형제들인’ 다른 지파들이 그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K. Lawson Younger, Jr. *Judges and Ruth*, (Grand Rapids, Mich. : Zondervan, 2002), 273.

브라임에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다.³⁹ 이전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형제들에게 판단을 받는 자였다면 이제는 판단자로서 에브라임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들과 맞서 싸웠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여기서는 혼외자라는 모티프로 평가해 볼 때 결말은 해설 부분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 혼외자라는 신분으로 비난받고 아무런 힘도 없이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쫓겨나야 했던 입다가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에 맞서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 자신의 것을 지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러티브 속에서 입다가 혼외자라는 것에 대해 화자와 등장인물의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그가 혼외자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등장인물들이 입다를 내쫓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이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반면 등장인물들은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입다를 배척하고 빈손으로 내쫓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며 입다에게 사과하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되돌려주고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공동체로 돌아간다. 에브라임도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 입다가 혼외자라는 것을 빗대어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보여주는 혼외자에 대한 화자와 등장인물의 관점의 차이를 통해 혼외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의 관점이거나 공동체의 편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입다 이야기에서 입다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가 혼외자라는 태생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신 제사 서원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을 마중 나온 딸을

39) 베틀러, 「사사기」, 706.

셀라와 결혼시킬 것처럼 유다가 다말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유다가 양털을 각기 위해 딴자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들은 다말이 유다와 밤을 보내기 위해 창녀로 위장한 것이다(12-14절). 여기서 화자는 다말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말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것은 유다가 다말의 계대 결혼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다말의 행동이 유다의 부당한 처사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전개 부분(15-23절)에서 유다와 밤을 보내고 임신한 후 다말은 유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절정 부분(24-26절)에서 다말의 임신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누군가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 하였고 또한 행음으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알려준다. 여기서 ‘행음하다’ 혹은 ‘행음’로 번역된 단어는 ‘הָגַתְּ(자나)’와 그의 명사형인 ‘הַגָּתָה(제노님)’으로 입다의 어머니를 지칭한 ‘הָגַתְּ(조나)’와 같은 어근이다. 여기서는 다말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외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혼외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즉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한다. 현재 임신 중인 다말을 죽이는 것은 다말과 함께 태아도 같이 죽이는 것이지만 태아의 생명은 여기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임신은 다말이 행음 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뿐이다. 다말을 죽이라는 유다의 선언은 구약법의 맥락에서 볼 때 부당한 판결은 아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따르면 처녀가 결혼 전에 혼외정사를 한 것이 발각되면 그녀는 음행한 여자 즉, 창녀로 간주되어 죽이라고 명한다. 그리고 결혼하거나 약혼한 여성이 남성과 동침한 것이 발각되면 이 둘도 죽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신 22:22-23). 현재 다말의 법적 지위는 셀라와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⁴² 간

42 고든 웬함, 「창세기하」(박영호옮김), (서울: 솔로몬, 2001), 646. 원제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통한 약혼녀에 대해 죽이라는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돌로 쳐죽이라는 일반적인 처벌이 아니라 불태워 죽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사장의 딸을 위한 처벌로(레 21:9) 제사장의 딸의 행음⁴³이 제사장인 아버지까지 오염시키는 행동⁴⁴이기에 더 심각하게 보고 가장 심한 처벌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유다는 다말이 혼외정사를 했다는 이유로 당시 가장 심한 벌을 내린 것이다. 이 부분이 이 내러티브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다. 유다 자신은 다말과의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말이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명기 22장 21-23절에서도 혼외 정사한 여성의 임신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혼외정사로 임신한 유부녀와 미혼모는 죽여야 할 범죄자일 뿐이며 그 결과로 임신한 태아와 혼외 자녀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을 기다린 다말은 미리 준비해 놓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며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밝힌다. 다말이 보낸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다. 그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선언한다. 다말이 셸라에게 계대 결혼을 요구할 권리를 가죽인 유다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말의 임신이 불법적인 성관계가 아닌 적법한 권리인 계대결혼의 요구로 인한 것이 밝혀지자 다말과 태아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말 부분(27-30절)은 다말이 유다 가문의 적법한 아들들을 낳는 사건을 기록한다.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 시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모습

(Waco, Tex. : Word Books, 1994).

43 개역개정은 'רִיב' (리즈노트)을 '행음하여'로 번역하고 있지만 하틀리와 룩커는 '창녀가 되다'로 하틀리, 레위기, 690. Mark F. Rooker, *Leviticus*, (Nashville, Tennessee :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454.

44 '속되다'로 번역된 'רָבָה' (힐랄)는 '오염시키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제사장의 거룩성을 훼손한다는 의미이다.

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창 25:24-26)을 상기시키며 이런 출생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유다 가문을 이어갈 후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의 혼외자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이들이 특별한 탄생 에피소드를 가진 유다의 아들로 가문의 적자로 인정된 것이다. 웬함은 이들이 이전에 죽은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한다.⁴⁵ 후에 베레스는 유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된다.

결론적으로 다말의 아이가 혼외 자녀인가 아닌가가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혼외 자녀는 가문과 공동체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성의 혼외 자녀와 달리 어머니의 가문이나 아버지의 가문과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나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이사야 56장 1-8절을 통한 혼외 자녀에 대한 현대적 적용의 신학적 틀 찾기

이 장에서는 장차 도래할 미래에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56장 1-8절을 통해서 교회가 혼외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적극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사야 56장 1-8절은 안식일에 누가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언급한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 백성의 외적 징표로 이 본문은 장차 도래할 미래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의 백성인가를 정의하고 있

45 웬함, 「창세기하」, 648.

다.⁴⁶ 3-7절에서 특별히 이방인과 고자를 언급하며 이들이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차일즈(Brevard S. Childs)는 이 본문이 특별히 신명기 23장 1-8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⁴⁷ 여기서 언급된 ‘고자(גֵּרִים/짜리쓰)’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 나온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주로 동양의 궁정에서 내시로 있던 사람들이다(참조, 예 1:10; 단 1:3-18).⁴⁸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궁전에도 존재했다(왕상 22:9; 왕하 8:6). 그 외에도 성전구역에 거주하며 말을 관리하는 자로도(왕하 23:11), 여호와와 계약을 맺는 상대로(렘 34:19) 나타나기도 한다.⁴⁹ 그러므로 고자가 꼭 이방인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특히 이 본문의 고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후사가 없어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사라질 것을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번역된 단어인 ‘גֵּרִים(네카르)’는 ‘외국인,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명기 23장 3-8절에 나온 모압, 암몬, 애굽, 에돔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박경철은 신명기 23장에 언급된 여호와의 총회는 병영터의 정결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명기 23장의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규는 곧 ‘여호와의 전쟁에 나서는 진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과 맞물려 있고 이사야 56장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⁵⁰ 그러나 사무엘하 23장 37절에 언급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는 암몬 사람 셀렉이 언급되며 그는 암몬 사람이지만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항상 참여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

46 알렉 모티어, 「이사야주석」(박문재 옮김), (서울: 솔로몬, 2018), 1035. 원제 J.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47 Brevard S. Childs, *Isaiah: a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457.

48 존 왓츠, 「이사야 34-66」(강철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2), 406. 원제 John D. W. Watts, *Isaiah 34-66*,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5).

49 배회숙, 「이사야 56장 1-8절의 재건공동체」, 「장신논단」, 39 (2010), 25.

50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 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구약논단」 16(4) (2010), 126.

므로 이 범규를 단순하게 여호와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또한 배회숙은 이사야 본문에서 고자에게 주어지는 ‘꺾어지지 아니하리라(사 56:5)’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고자에 대한 신명기 본문(신 23:1)의 칭호 ‘음경이 잘린 자’와 동일한 어근의 동사 ‘קָרַח’(카라트)가 사용된다는 점은 오히려 두 본문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⁵¹ 박경철과는 달리 신명기 23장과 이사야 56장의 두 본문의 상관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신명기 23장에서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당했던 사람에게 대해 이사야 56장에서는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자와 이방인이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고 한다. 박경철은 “공의와 정의의 실천과 이방인과 고자의 안식일 준수와 여호와와의 계약을 붙잡는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아들이는 하나의 새로운 종말론적 비전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김동혁은 이 약속은 무조건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5절은 각각 조건절과 귀결절인데, 조건절(4절)은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 둘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것, 셋째는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을 것이 그것이다.⁵² 여기서 안식일 준수 조건은 구체적인 데 반해, 다른 두 계명은 추상적인 이유는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⁵³ 그 이유로 그는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 언약의 환유어이며 토라의 정수로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

51 배회숙, “이사야 56장 1-8절의 재건공동체”, 26.

52 차일즈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제시한다. Childs, *Isaiah*, 458. 특히 고자의 경우는 55:13과 상호본문적 연결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이름, 정표).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구약논단」, 24(2) (2018), 20.

53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20.

한 가장 중요한 요건 보았다.⁵⁴ 왓츠는 여호와는 자발적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구하는 자들, 곧 언약적 공동체에 연합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용납을 보장하신다고 하였다.⁵⁵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큰 틀에서 다가올 새로운 여호와와 공동체에 대한 전망으로 이전에 여호와와 공동체의 범위를 규정했던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티어는 고자와 이방인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목할만한 예로 제시되었다고 하였는데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⁵⁶ 즉, 이사야 56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혈통이나 민족, 혼외 자녀나 맘제르와 같은 타고난 조건뿐만 아니라 고자와 같이 후천적으로 자신이 얻은 신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수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태생적 한계는 여호와와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자나 이방인처럼 맘제르나 혼외 자녀 특히 여성의 혼외 자녀도 여호와와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나 여호와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56장의 전망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한 포용성을 넓혀 가야 할 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54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24.

55 Watts, *Isaiah* 34-66, 406.

56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1035.

5. 나오는 말

본 연구는 교회가 혼외 자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 본문의 혼외자에 대한 이중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구약 본문 연구를 통해 혼외 자녀에 대한 포용성을 넓힐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생자는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 오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는 신명기 23장 2절의 개역개정 번역에서 시작하였다. 과연 맘제르를 현재 한글 번역처럼 ‘사생자’ 즉, ‘혼외 자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밝히기 위해 혼외자, 이방신에게 바쳐진 아이, 혼혈아, 근친관계로 태어난 아이 등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맘제르는 불법적인 성관계 특히,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구약의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혼외 자녀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의 혼외자인 입다 내러티브와 여성의 혼외 자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말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혼외자인 경우는 아버지의 기업을 다른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었고 남성의 혼외 자녀는 법적, 재산적으로 적법한 자녀들과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가정이나 공동체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이 혼외자를 임신한 경우는 신명기 법의 적용을 받아 죽임당한다. 즉, 여성의 혼외 자녀를 위한 자리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같은 혼외 자녀라도 구약은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남편의 혼외 자녀와 아내의 혼외 자녀의 신분과 권리와 사회적 인식에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회가 혼외 자녀에 대한 포용성을 넓힐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입다가 비록 혼외자로 태어났고 이로 인해 가족

들과 공동체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승인해 주셨고 그의 손을 통해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와의 전쟁을 하셨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졌고 사사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입다가 혼외자라는 것은 여호와와의 일을 하고 여호와와의 인정을 받고 여호와와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 본문은 여성의 성을 통제하며 여성의 혼외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혼외 자녀와 남성의 혼외 자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 입다처럼 공동체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새로운 시대의 여호와 예배 공동체를 언급하는 이사야 56장의 빛에서 신명기 23장을 읽는 것이다. 이사야 56장 1-8절에서 미래에 임할 새로운 여호와와의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이나 맘제르처럼 태생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나 고자처럼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진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명기 23장에서 언급된 전통적으로 배제된 그룹들도 새로운 시대에는 모두 여호와와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들이 여호와와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조건은 그들이 공의와 의를 행하고 여호와와의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이어가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것이 실현되는데 초대 교회의 한 개종자는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맡고 있는 내시였다(행 8:27-37). 그는 이방인이자 내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볼 때 새 시대를 연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혼외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 특히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들을 교회에서 배제시키거나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도 동등하게 교회의 일원으로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혼외 자녀를 교회가 포용할 때 교회가 미혼모의 인권과 혼외 자녀의 생명권과 인

권을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Block, Daniel I., *Judges Ruth*,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1999).
- Botterweck, G. J., Helmer, R., and Heinz-Josef, F.,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Stott, D, W., (Grand Rapids: Eerdmans, 2003).
- Brown, Driver,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in Bible works 10.
- Brown Raymond, *The Message of Deuteronomy: Not by Bread Alon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93).
- Childs, Brevard S., *Isaiah : a Commentary*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Craigie. Peter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1976).
- Koehler-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 M. E. J. Richardson, (Leiden: Brill, 2001)
- Levitsky, Joseph, “The Illegitimate Child,(Mamzer) in Jewish Law” , *Jewish Bible Quarterly*, 18 no 1 Fall (1989), 6-12.
- Lundbom, Jack R., *Deuteronomy: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3).
- Marcus, David, “The Legal Dispute Between Jephthah and The Elders” , *HAR* 12 (1990), 105-115.
- Matthews, Victor H., *Judges and Ruth*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McConville, J. G., *Deuteronomy* (Apollos: InterVarsity Press, 2002).
- Merrill, Eugene H., *Deuteronomy* (Nashville: Broadman& Holman, 1994).
- Rooker, Mark F., *Leviticus*, (Nashville, Tennessee :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 Sasson, Jack M., *Judges 1-12 /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 (New Haven, Connecticut : Yale University Press, 2013).
- Schneider, Tammi, *Judges* (Collegeville, Minn. : Liturgical Press, 2000).
- Thompson, Deanna A., *Deuteronom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 Tigay, Jeffrey H., *Deuteronomy :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 Commentary*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VanGemeren Willem A.,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7).
- Webb, Barry G., *(The) Book of Judges* (Grand Rapids: Eerdmans, 2012).
- Younger, Lawson K., *Judges and Ruth* (Grand Rapids, Mich. : Zondervan, 2002).
-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구약논단」, 24(2) (2018), 12-36.
- 김상복, 「행복은 선택이다」, (서울: 도서출판 햇불, 2000).
- 김서택, 「신명기 강해집: 축복의 디자인」, (서울: 솔로몬, 2007).
- 김서택, 「위대한 부흥의 불꽃, 이스라엘의 사사들 3」, (서울: 홍성사, 2001).
- 김소정, “8월에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 신문」, 2014년 7월 2일. 검색 일자: 2022.03.0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dxno=74163>
- 김혜윤, “잠언 1-9장의 이사 라아와 노크리아: 구조적 일관성과 그 정체성 연구”,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3 (2009), 155-189.
- 노희원, “신23장에 나타난 가족과 회중의 질서”, 「신학논단」 30 (2002), 7-35.
- 모티어, 알렉, 「이사야주석」 (박문재출판), (서울: 솔로몬, 2018), 1035. 원제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llinois : InterVarsity Press, 1993).
- 밀러, D. 패트릭, 「현대성서주석: 신명기」 (김회권출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 Miller, Patrick D., *Deuteronom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구약논단」 16(4) (2010), 114-136.
-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버틀러, 트렌트 J., 「사사기」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681-682. 원제 Trent C. Buttler, *Judges*, (Nashville : Thomas Nelson, 2009)
- 배희숙, 「이사야 56장 1-8절의 재건공동체」, 「장신논단」 39(2010), 11-34.
- 소형근, 「신명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여성민, 「꼭꼭 씹어먹는 사사기」,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 왓츠, 존, 「이사야 34-66」 (강철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2), 406. 원제 Watts, John D. W., *Isaiah 34-66* (Grand Rapids, Michigan, : Zondervan, 2005).
- 웬햄, 고든, 「창세기하」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서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aco, Tex. : Word Books, 1994).
- 이동원, 「이렇게 시대를 극복하라: 사사기 강해 설교」, (서울: 나침반, 1999).
- 이세용, 「새벽만나: 신명기」, (안산: 만나북스, 2017).
- 임상국, 「음행의 영과 북왕국의 비배체제- 호세아 메타포의 비판 사회학적 해석」, 「신학과 세계」 51 (2004), 94-122.
- 장일선, 「신명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조관호,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들 2」, (서울: 그리심, 2006).
- 카이저, 월터 C.,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원제 Kaiser, Walter C.,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MI : The Zondervan, 1983).
- 칼빈, 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1」,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 크리스텐센, 듀엔, 「신명기2」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7). 원제 Christensen, Duane L., *Deuteronomy 21:10-34:12*, (Nashville, Tenn. : Thomas Nelson, 2001).
- 홍성혁, 「호세아가 외친 저항의 이상: 광야의 상생과 안전 관계망을 꿈꾸며」, 「기독교 사상」 634 (2011), 38-49.
- 황건영, 「통곡의 눈물에서 승리의 비상으로」, (서울: 그리심, 2007).
- “키우기 힘들어서” ...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놓고 논란 재점화하나” 2019.02.15. 김
색일자: 2022.03.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133100017>

주제어

사생자

입다

신 23:2

혼외 자녀

여호와의 총회

Expanding the church's inclusion through the study of the illegitimate children in the Old Testament

You-Mee Park

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present the basis for the Korean church to take an inclusive stance toward children out of wedlock through the study of Old Testament texts. For this purpose, I dealt with ‘mamzer’ in Deuteronomy 23:2, the narrative of Jephthah (Judges 11), the narrative of Tamar (Genesis 38), and Isaiah 56. Chapter 2 affirms that the mamzer of Deuteronomy 23:2 was a technical term for a child born through incest. In Chapter 3, through the study of the Jephthah and Tamar narratives, we observe that men’s children out-of-wedlock are seen negatively by their families or communities but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terms of law and property compared to the men’s

www.kci.go.kr

legitimate children. In contrast, if a woman conceives a child out of wedlock, by the Deuteronomic law she is sentenced to death. Due to the patriarchal culture, there was a huge difference in the status, rights, and social perceptions of the husband's children out of wedlock and the wife's children out of wedlock.

In Chapter 4, I read Deuteronomy 23 in the light of Isaiah 56. Here, the stranger symbolizes a group of people with innate limitations and the eunuch symbolizes a group of people with limitations due to acquired factors or actions. The conditions for their acceptance into Yahweh's community are that they do justice and righteousness, and keep Yahweh's law, covenant, and sabbath. In other words, if they make a covenant with Yahweh and keep it, they will be recognized as God's people and accepted into Yahweh's community. In conclusion, as the New Testament church that has opened a new era, we should no longer view negatively children out of wedlock and their mothers, especially unwed mothers, exclude them from the church, criticize them, or do anything that disadvantages them.

KeyWord

mamzer

Jephthah

Deut. 23:2

illegitimate children

assembly of Yahwe

- 투고일: 2022년 4월 14일
- 심사일: 2022년 4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19일

www.kci.go.kr